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신앙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 오늘 오후 1:30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청파성서학당은 쉽니다.

추석예배순서지 : 가정에서 드리는 추석예배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1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점심식사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을소풍 : 10월 18일에 전교인 가을소풍이 있습니다.(문화부 주관) 장소는 춘천 유정마을(김유정역 일대)입니다. 9:30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산역에서 직통전철(전세)을 타고 이동합니다.

신앙실천 :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갈 수 없어 마음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더 7:1-6 / 시 124	2부	딤페전 6:11-16
예배	막 5:13-20 / 막 9:38-50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권 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없음)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없음)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 초 등 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 고 등 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제17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추수를 앞둔 황금색 들녘과 코스모스 가득 핀 알록달록한 가로수 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곳곳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짓눌려 잿빛의 세상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영혼 속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주님,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청과교회와 교회학교가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 진리를 따르는 행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112. 교회교육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응답 송 찬양대
- 찬 양 393.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잠 31:10-31 약 3:13-4:3 막 9:30-37 하진솔 선생
 II. 히 5:7-10 허신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날 구하셨네 참빛찬양대
- 말 씬 I. 이범석 목사
 II. 순종을 배우다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숙이 구재원 권혁순 박혜경 김영아 김예영 김정수 정자현 김주영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현주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민지희 박숙미
 박예림 박윤숙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배삼순 성지현 심상숙 양상철 박재란
 오진훈 노순옥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윤순우 윤정덕 구성실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응석 이은경 이증자 김창경 장동훈 정은선 장해정 전영린
 정선희 정영례 정현모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최 숙 최은미 한기택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국영주 김승욱 진혜정 김재환 김재흥 최희영 김중수 이순정 김태정 박재영
 이현정 안정준 오진훈 노순옥 윤순우 이광석 이경희 이소애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전영린 김행자 홍성식 이유리 황재모 강지선 무명15

생일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주은경

녹색꿈헌금

김예영 김용길 최영혜 이고임 이재삼 무명8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다정다한多情多恨 다정다감多情多感

내 어머니도 '김정자'고 내 장모님도 '김정자'다
 내 어머니는 정읍에서 정읍으로 시집간 김정자고
 내 장모님은 봉화에서 봉화로 시집간 김정자다
 둘 다 산골짜에서 나서 산골짜기로 시집간 김정자다/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가 아까운 터에
 봉화 김정자와 함께 정읍 김정자한테로 갔다
 봉화 김정자는 정읍 김정자를 위해/ 간고등어가 든 도톰한 보자기를 챙겼다
 정읍 김정자는 봉화 김정자를 위해
 시금시금 무친 장아찌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정읍 김정자는 봉화 김정자 내외에게
 장판과 벽지를 새로한 방을 내주었으나
 봉화 김정자는 정읍 김정자 방으로 건너갔다
 혼자 사는 김정자를 위해/ 혼자 자지 않아도 되는 김정자가
 내 장인님 독숙하게 하고/ 혼자 자는 김정자 방으로 건너가 나란히 누웠다/
 두 김정자는 잠들지도 않고 긴 밤을 이어갔다
 두 김정자가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 소리는
 아내와 내가 딸과 함께 자는 방으로도 건너왔다
 죽이 잘 맞는 '근당게요'와 '그려이껴'는
 다정다한한 얘기를 꺼내며 애먼 내 잠을 가져갔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이른 아침,
 한 김정자는 쌀 씻어 솥단지애 안치고
 한 김정자는 화덕불에 산나물을 삶고 있다

- 박성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등	

찬양	브라스밴드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삶을 보고 배우십시오. 하늘 뜻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께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쫓대이십니다.	
다 함께:	아멘. 삶의 모범이 없는 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한 순종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부질 없는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내고 진리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김재흥 목사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청년 중	청년 중

9월	영접위원	김인걸 송동준 강세기 이소애 서정순 한양미
	헌금위원	김정민 김금순

믿음으로 읽는 글

환대,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돌봄과 연민, 이해와 용서, 유대와 공동체 등 많은 말이 그리스도교 사목에 맡겨진 치유 과업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환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 단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처한 조건인 외로움에 본질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환대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을 음식, 따뜻함, 주거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로 여긴다. 나우웬은 우리가 이말의 어원을 탐구하고 사목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환대는 독일어로 가스트프로인트샤프트gastfreundschaft라 하는데, 이는 손님과의 우정을 뜻한다. 같은 말의 네델란드어 하스트브레이헤이트gastvrijheid는 손님의 자유라 번역된다. 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 곧 구속하지 않는 우정을 나누며 홀로 두지 않는 자유를 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환대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영적인 사다리를 타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가 동등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진정한 환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환대는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편과 저편을 구분 짓는 선에 영향받지 않을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 환대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길을 찾을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다른 이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며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치유자로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말해야,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수요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치유자란 고통 속에 있는 낯선 이들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에 끈기 있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집주인이다. 또한, 환자란 그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하는 손님이다.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가운데 이전에 낯설었던 손님은 초대한 사람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도 친구가 된다.

이러한 사목 모델이 매력적인 이유가 더 있다. 집주인과 손님 모두가 함께 치유될 것을 기대하며 관계에 들어선다면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식의 생각은 설 자리가 없다. 사목에 많은 시간을 쏟는 이들은 자신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를 함으로써 현실에 맞지도 않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기대감은 ‘돌봄을 직업으로 삼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탈진에 빠지도록 부채질한다.

그리스도인은 낯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이질감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동료 인간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 원수hostis가 손님hospes 되게 하는 것, 곧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